

# 탐·진·치서 벗어나면 행복은 커진다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5)

붓다의 답변은 세 단계로 펼쳐지고 있다 (구분을 위해 본문에 임의로 번호 추가). 첫 단계는, 자기 삶에서 발생하고 직접 검증되는 경험과 무관한 것들을 진리판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어떤 주장이나 가르침을 삶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험적 변화를 이로움/해로움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이로움/해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탐욕·분노·무지라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 붓다가 열거하는 진리판별의 부적절한 근거들은 모두 직접경험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경험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거나,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경험하지 않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에 기대어 진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붓다는 비판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어떤 가르침의 진리치를 판단하려면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경험적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 경험적 결과가 해롭고 괴로운 것이면 진리답지 못하다고 보아 외면하면 되고, 이롭고 행복한 것이면 진리답다고 보아 수용하면 된다는 것이 붓다의 조언이다.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문제풀이의 실제결과'를 기준으로 해법·진리의 타당성과 수준을 판정하는 것은 프레임워크의 정신은, 붓다의 관점과 분명 상통한다.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로움과 해로움, 행복과 괴로움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 문제풀이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그 기준이다.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증대되면 필수로 해로움과 괴로움이 커지고, 탐욕·분노·무지에서 풀려나면 날수록 이로움과 행복이 커진다는 것이 붓다의 관점이다.

경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거나 검증될 수 없는 것은 진리판별의 기준이 되기에 부적절하다는 경험주의 원리, 삶이라는 문제 상황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험적 결과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탐·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해법의 진리치를 판단하라는 실존 실용주의 원리. - 붓다의 진리관은 이 두 원리를 조건으로 수립되어 있다. 집단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집단이 고안해 낸 논리와 주장의 허구 비판, 연극집단의 자기옹호 논리에 대한 비판, 상반되는 진리 주장들을 처리하는 방법, 개중의 문제, 논리의 승리와 삶의 이익의 승리 문제 등을 처리하는 붓다의 설법에는 일관되게 이러한 진리관이 적용되고 있다.

3. 자아환각과 탐욕·분노·무지  
실존 왜곡과 오염의 원인들이 탐욕과 분노 그리고 무지의 문제로 수렴된다는 붓다의 통찰은 충분히 타당하다. 삶의 모든 해악적 상황은 결국 개별화·집단화된 탐욕과 분노 및 무지의 표현 양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붓다는 진리의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탐·진·치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러한 붓다의 입장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탐욕·분노·무지의 철학적 의미를 가급적 명료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채워지지 않은 감각적 욕망·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탐욕, 탐욕을 좌절시키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응이 분노, 사상에 대한 몰이해가 무지라는 것이, 아마도 탐·진·치에 관한 이해의 전형일 것이다.

탐·진·치의 발생조건에 관해서는 붓다의 명확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감각능력(六根)과 대상(六境)이 접촉할 때 발생하는 세 가지 느낌(즐거움·느낌·괴로운 느낌·즐거움과 괴로움에 쏠리지 않은 느낌), 그리고 인식 성립의 초기조건인 표상(nimitta,

## 행복·괴로움 판별 기준 무엇인가 탐·진·치 증대되면 괴로움 커져

相)이, 탐·진·치의 발생조건으로 설해진다. 육근과 육경의 만남을 조건으로 세 가지 느낌이 발생하는데, 이 세 느낌이 각각 탐욕·분노·무지의 잠재적 경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다. 또한 탐욕·분노가 발생하고 증폭하는 원인조건은 '아름다운 표상'·'적의의 표상' 및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며, 무지가 발생하고 증폭하는 원인조건은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다. 세 가지 느낌이 탐·진·치의 잠재성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며, '아름다운 표상'·'적의의 표상'·'표상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 탐욕과 분노의 발생 및 증폭이 조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 무지의 발생·증폭 조건이라는 붓다의 설법은, 그 의미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일상적 지성과 직관으로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탐·진·치 발생연기의 철학적 의미는 단순하지도 않고 용이하게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탐·진·치의 발생조건을 밝히는 것은 곧 소멸조건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붓다가 설하는 탐·진·치 연기설법도 발생과 소멸의



낙산사 해수관음상의 모습. 붓다가 설하는 탐·진·치 연기설법은 삼독심의 발생과 소멸의 조건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조건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이 탐·진·치 연기설법의 의미를 읽어내려면 다양한 각도에서의 조명이 필요하다. 밑그림을 그려 본 그림을 그려내는 기법에 비유한다면, 탐·진·치 연기설법이라는 본그림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수많은 밑그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탐·진·치를 자아환각과의 연관에서 서얼이 밑그림 한 장을 그려본다.

### 1) 무지와 비연기적 이해

붓다는 무명을 '사성제(四聖諦)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사성제는, 근원무지에 묶인 고통의 삶과 그 원인조건들(苦와集), 근원무지에서 풀려난 해탈의 삶과 그 원인조건들(滅과道)을 함께 열거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성제 연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사성제 연기의 내용은 결국 '자아 환각을 둘러싼 조건인과'로 압축된다. 불변의 본질을 지닌 독자적 자아·존재가 실재한다고 착각하는 무지를 '유지·강화·표현하는 조건인과'(고집연기 苦集緣起)와, 무지에서 '풀려나는 조건인과'(별도연기 滅道緣起)를 밝히는 것이 사성제 연기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불변자이라는 환각을 둘러싼 두 가지 조건인과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불변자'라는 무지가 발생·유지·강화되는 조건인과와 소멸하는 조건인과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근원무지의 핵심을 차지한다.

무명의 핵심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무명의 무지는 '불변자'에 대한 지적(知的) 선호'라 할 수 있다. '변치 않는 내용물을 자신의 본질로서 지닌 독자적 자아가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지적 경향성이, 근원무지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무명의 무지(無知, delusion)는 지식의 결핍이나 지능(知能, intellectual faculties, intelligence)의 열등이 아니다.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지능도 무지와 동반할 수 있다. 무지는 단지 '제대로 알지 못함'이라는 소극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변자'에 대한 지적 선호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옹호와 방어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불변의 독자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신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이해·관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지적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무지는 자아 환각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지식을 동원하고 정교한 논리를 마련한다. 자아환각을 움켜쥐는 자기방어를 위한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지의 치유가 가장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탐욕은 근본적으로 불변자'에 대한 기대를 채우려는 욕망이고, 분노는 이 탐욕과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무지가 탐욕과 분노를 발생시키는 원천이다. 탐욕이 자아환각을 유지하기 위한 긍정방식이라면, 분노는 동일 목적의 부정방식이다. 무지는 이 두 가지 환각유지 방식의 원천인 동시에, 양자를 결합시키는 매개역할도 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꿈에서 깨어나자

인생의 절반은 밤이다. 70년을 살 경우 35년은 밤으로 누워서 보낸 셈이다. 거기가 철모르던 어린 시절을 빼고 나면 눈떠 생활한 시간을 지극히 짧다. 행복해하며 만족스러워하는 시간은 더욱더 줄어든다.

하여, 사람들은 허무감을 느낀다. 무성함을 느끼는 것이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와 좌절을 거듭 느끼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철이 드는 나이에 접어들면 종교적인 신앙을 필요로 한다. 세상 일이 덧없고 삶의 의미가 부질없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계의 성직자들은 쉬운 진리보다는 구름 잡는 진리를 들려준다. 혼란과 방황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기만과 횡포를 일삼아 왔는지, 유럽의 역사에서 몇 가지를 주려 여기에 옮겨 보겠다. 파리 대학의 아돌리라는 사람이

망의 증서라며 교회의 지배영역을 확보했던 것이다.

진리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드러나 있다.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생활공간에 물처럼 공기처럼 널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잠이 덜 깨어 진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진리인줄 모를 뿐이다.

생각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누구냐 한결 같다. 행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의 신앙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행복을 위한 몸부림이다. 영원한 자유, 결핍과 막힘이 없는 자유인에 이르기 위한 것이 신앙의 생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신앙은 할수록 시야가 트여야 한다.

사다다리에 오르듯이 끊임없이 허물을 벗어내야 한다.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닫힌 창문을 열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눈감는 눈을 즐기는 것이다. 감긴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고,

## 진리는 어리석은 자를 키우지 않는다 스스로 참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범신론적 철학관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는 교회 당국으로부터 갖은 박해를 당한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제자인 학생들이 그의 학설에 따라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닌 자연의 모든 사물 속에 깃들어 있는 존재라며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

이들 학생 중 열 명이 교회 당국에 끌려가 1210년 화형을 당하게 된다. 불로 태워서 죽인 것이다.

또한 1410년 무렵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를 공공연히 팔고 있었다. 거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금색의 죄가 없어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엉터리 논리였던 것이다.

이 땅의 불교에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전생의 빛'이,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로 등장해 신도들의 돈을 거둬들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교황청에서 가짜로 만든 '콘스탄티누스왕의 토지 기부증서'는 교황이 이를 데 없는, 양심을 잃은 성직자들을 대표하는 커다란 사건이다.

교황이 지배하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몇 백 년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콘스탄티누스왕'이 기부한

부처님의 영령을 만들어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진리는 머저리 병신에게 지혜와 자비의 숨결을 밀어 넣어 온전한 사람,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고기가 몇 마리를 비닐 봉투에 넣어 두었다가 강변에 나가 풀어 주는 것이 방생이 아니다. 삼재풀이 따위로 전생의 빛을 갖기 위해 드리는 불공 따위는 불공이 아닌 것이다.

죽어있는 신앙과 죽어 있는 시체에서는 냄새가 나는 법이다. 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처럼 죽어 있는 신앙을 즐기는지, 깊은 잠에서 철저히 깨어나도록 진리의 북소리를 울려주고 싶다.

진리의 바다에 실 한 오라기라도 담가 열린 진리의 빛줄기 속에서 살아가자.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꿈에서 깨고 난만 뜨면 호랑이가 아닌 평범한 지가 그대의 것이다.

꿈속에서 헤매는 따위의 방황에서 되돌아와 당신 스스로 참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언제 깨져갈지 모르는, 소중한 당신의 남은 삶을 위해,

## 마음의정원 {랄랄라 진관사}

정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정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뽁뽁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법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부터>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던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정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 얀트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탄트라 상징 안트라  
안트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안트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점이다. 170점 이상의 흑백과 컬러 안트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명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탄트라 상징으로 안트라와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안트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안트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안트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안트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